論 壇

敎養敎育의 현황과 문제점

朴 鍾 哲
(崇田大 國語國文學科)

우리나라 大學들은 敎養敎育에 대한 올바른 인식조차 거부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한다. 실제의 대학 운영자 대부분이 교양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기는 하면서도, 교양교육의 구체적 의미와 그 실천방안에 대해서는 많은 대학들이 혼란을 보이고 있다.

Ⅰ. 序

現代를 人間性 상실의 시대라고들 말한다. 혹은 인간의 기계화, 기계의 노예화를 우려하기도 한다. 人間社會가 산업사회로 접어든 이후 科學文明이 발달하면 할수록 人間性의 不在現象은 더욱 확대되고 심화된다는 현실을 염려하는 것이기도 하다.

人間性의 不在란 人間의 不在와 同價의 意味이다. 인간이 不在하고 있는 세기, 그러한 세기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러면서 또한 이러한 인간 부재의 현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인간성의 회복, 인간 가치의 재정립을 강조하는 세기에 살고 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되돌아 갈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되찾을 수 있겠는가? 항시 실제적이며 객관적인 현상을 우려하기는 하나, 그러한 현상을 타개하고, 극복하기 위한 방법론적 문제에 부딪치게 되면 우리 모두는 난감해 한다. 다양한 방법들이 開陳되고 論議되기는 하나 여전히 우리는 人間 不在의 현실을 우려하고 있다.

어떻게 우리는 상실한 인간성을 회복하고, 인간의 참다운 가치를 되찾을 수 있겠는가? 이러한 현실에 대한 냉철한 인식에서부터 敎養敎育의 문제는 검토되어야 한다. 敎養과 人間性, 혹은 人間의 참다운 價値는 서로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人間이 무너지고 있는 世紀, 人間的인 것의 價値가 뒤로 물러서 있는 世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 가슴 아플수록, 우리들이 人間에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命題는 더욱 더 절실해지는 것"[1]이고, 따라서 敎養과 敎養敎育에 대한 문제는 더욱더 검토되고, 논의되고,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1) 金烈圭, "오늘의 大學과 人文科學", 「大學敎育」, 제10호, 韓國大學敎育協議會, 1984, p. 62.

Ⅱ. 敎養의 定義

敎養에 대한 가장 일상적이면서도 상식적인 정의를 '人格의 調和로운 발달'에 두고 있음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人格의 조화로운 발달'이란 것이 어떤 명확하면서도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그 출발점이나 한계를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어떻게 보면 지극히 추상적이고 막연한 것이어서 그러한 定義를 내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개념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敎養이란 單語에 대해 "敎養을 뜻하는 自由(liberal)란 말의 역사와 의미는 오늘날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그 결과로 교양이란 정확한 지식의 영역 밖에 존재하는 어떤 연구, 혹은 문화적 세련이나 불확정적 연구로 간주하는 모호한 속성으로 일컬어지기도 한다"[2]는 주장이 나오기도 하며, "敎養의 성질과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시험해 본 여러 가지 노력은 무지개의 기원과 의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민족이 여러 곳에서 수천 년 동안 상상해 온 바 관념들만큼이나 다종다양"[3]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는 이 개념을 특정한 윤리체계로부터 유도하고자 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그가 채택하는 인간론이나 종교, 이데올로기나 어떤 일반적 문화이론에서 敎養敎育의 개념을 구할 수도 있을 것"[4]이라는 槪念的 多義性이 제기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장들은 결국 敎養의 의미란 時代와 文化를 달리하면서 나타날 수도 있는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상이하게 정의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敎養이란 단어의 정의가 몇 마디의 말로 쉽사리 정의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려 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해서 교양이란 단어의 槪念的 定義조차 내리지 못하면서 敎養敎育에 대해 논의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것일 수밖에 없다. 이것은 그 반대로 생각한다면, 敎養이란 단어의 개념적 정의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다면 교양교육의 합리적인 방향도 어느 정도 명시적으로 제시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敎養은 '人格의 調和로운 發達'이라고 할 때의 人格이란 인간의 理性에 바탕을 둔 도덕적인 주체로서의 개인적 품격이라고 정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도덕적 주체로서의 개인적 품격이란 완성된 결과로서의 단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 능동적이며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가치판단의 능력과 자유의지에 의한 태도결정의 단계적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어야 한다. 완성된 인간이란 우리가 목표로 하는 인간의 궁극적인 理想인 것이지 실제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가치판단의 능력과 자유의지에 의한 태도결정은 참됨과 선함과 아름다움에 대한 종합적인 앎을 바탕으로 이룩되는 것이다. 이것은 人格이란 어느 한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삶에 대한 총체적인 지혜를 의미한다는 것이기도 하다. 다시 말하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을 때 한 개인의 올바른 인격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인류의 정신은 그 자체를 무한히 추가하는 것에서, 그 역량의 무한한 확대에서 지혜와 미에 있어서의 무한한 발달에서 그 이상에 도달하기 위하여 敎養은 없어서는 안 되는 도움이 되며, 그것이 敎養의 진정한 가치"[5]인 것이며, "우리들이 우리들 자신의 내부세계를 바라본다면 너무나 오로지 열정과 힘과 착실과 행동을 숭배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빠졌던 비이지적 판에 박힌 일의 습관과 일방적 발달로부터 생기는 온갖 혼란을 발견한다. 우리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들의 인간성의 보다 충분한 원만

2) M.V. Doren, *Liberal Education*, Beacon Press, 1959, p. 71.
3) 崔敬瑞編, 「敎養論」, 博英社, 1963, p. 193.
4) 丁大鉉, "敎養敎育의 槪念", 「大學敎育」, 제 2 호, 韓國大學敎育協議會, 1983, p. 11.
5) 아르놀드, 李佳炯譯, 「교양과 무질서」, 박영문고, 1980, pp. 61-62.

한 발전,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판에 박힌 관념들 위에서의 사상의 자유로운 활동, 의식의 자발성, 優美와 明智이다. 그리고 이것들은 바로 敎養이 生育하는 것이다."[6]

결국 人格의 調和로운 發達이란 眞·善·美 혹은 知·情·意가 조화를 이룬 自由人의 이상으로서의 원만·조화로운 人間性의 발달을 뜻하는 것이다. 따라서 敎養敎育이란 人間敎育인 것이며, 人間敎育이란 철학·종교·문학과 예술 등을 통해 "기계적인 人間이나 知識人이 아니라, 생각하고, 사랑하며, 깊이 느끼고 생활하며, 내면적인 자아를 확대하고 창조하기 위해서 부단히 스스로 배우는 인간다운 全人的 存在로 지향"[7]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現代의 大學은 中世 西歐의 大學들처럼 인본주의(Literary Humanistic Tradition)에 근거한 敎養 中心의 大學으로만 존재할 수는 없게 되었다. 현대의 과학문명이 발달하기 시작하고 산업의 발전이 가속화되기 시작하면서부터 自由人의 요람으로서의 大學은 무한하게 분업화되어 가는 현대 산업구조의 수요에 따라 현실적인 직업교육이라는 강력한 사회적 요구에 당면하게 된 것이다. 현대의 사회는 大學으로 하여금 현실적이고 실제적이며, 실용적인 가치를 생산하지 못하는 理想의 世界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현실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직업교육에 적극 봉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조류는 우리나라의 大學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더우기 "우리나라 大學의 與件은 專門家의 양성을 學部에서보다는 大學院課程에서 하고 있는 美國과 같은 나라와는 그 사정이 상이하게 다르다. 아직 대학원 교육이 외국과 같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현 실정에서 전문가의 양성은 당분간 학부과정에서 담당할 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학부에서 전공과정에 力點을 두지 않으면 안 될 실정"[8]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학의 교육이 직업교육으로서의 전공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의 現實的 狀況에서 오히려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現代의 産業은 극도로 분업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 직업교육만을 철저히 한다면 그는 결국 복잡한 기계의 한 부속품이 되고 말 것이다. 그의 집중적인 노력의 결과로 그 기술분야는 발전할 수 있을 테지만 그의 다른 능력들은 수축되어 이성적 존재로서 타락하고 만다. 이는 그가 맡은 바 분야 밖에서는 무용한 존재"[9]가 되어 참다운 의미에서의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더우기나 직업교육으로서의 知識이란 삶의 한 방편에 불과한 것이지 지식의 습득 그 자체가 삶의 목적일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하나의 방편으로서의 지식의 습득만으로는 현대의 고도로 심화된 지적 세분화로 인해 심한 지적 불균형을 초래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지적 불균형은 종합적인 가치판단의 능력을 파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식은 인간이 행하는 해결과 발명과 창조의 방편이 될 뿐이다. 지식을 구사할 능력을 가지는 사람에게 지식은 유용한 도구이지만 그런 능력을 갖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무거운 짐이 될 따름이다. 교양은 그런 능력을 기르는 길이다."[10]

따라서 현실적인 여건이 직업교육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해도 그것은 敎養을 중심으로 한 人間性의 完成을 전제로 할 경우에만 올바른 직업인과 사회인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이 될 것이다. 자기의 삶을 즐길 수 있어야 하고 자유와 정의의 인간사회를 꿈꾸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며, 인간사회와 세계에 대한 지적 관심을 충족시킬 수 있으며, 眞理나 美, 혹은 善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인간에 대한 의미와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확인하고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

6) 아르놀드, 상게서, p. 203.
7) 朴琮稷, 「敎育과 哲學」, 文音社, 1984, p. 325.
8) 신극범외, 「大學 敎養敎育 運營改善에 관한 硏究」, 한양대 학생생활연구소, 1982, p. 128.
9) A.H. Newman, *The Idea of a University*, 1952, p. 45.
10) 崔載瑞編, 전게서, p. 47.

Ⅲ. 우리나라 대학의 敎養敎育과 그 문제점

그러나 우리나라의 大學들은 敎養敎育에 대한 올바른 인식조차 거부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한다. 실제의 대학 운영자들 대부분이 교양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기는 하면서도, 교양교육의 구체적 의미와 그 실천방법에 대해서는 많은 대학이 혼란을 보이고 있거나 과거의 교육과정을 무비판적으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각 大學의 敎養敎育의 목표와 교육과정에 잘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도 각 대학에서 설정하고 있는 교양교육의 목표에서부터 개념적 혼란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것은 "해방 이후 한국의 대학은 美國 敎育制度의 영향을 받아 학부에 교양교육과정을 편성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 교양교육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며 어떤 내용으로 편성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분명한 인식도 없이, 거의 敎育法만을 충족시키는 범위 안에서 편성한 나머지 형식에 지나지 않는 敎育課程을 만들어 운영하여 왔던 것 같다. 사실 이러한 경향은 오늘날에까지 계속"[11]되어 온 것 또한 사실이다.

게다가 敎育法 施行令 제119조 2항은 "일반 교양과목이라 함은 일반 지도적 인격을 도야함에 필요한 과목"이라 정의하고 있어 교양교육의 개념을 人間敎育이라는 관점, 專攻敎育을 위한 준비과정이라는 관점, 사회생활에 필요한 실용적 과정이라는 관점, 혹은 이른바 고전과목만이 포함되는 과정으로 보는 견해 등 개념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실제 1984年度 大學評價過程에서 나타난 전국 대학의 교양교육의 목표를 보면 '인격의 완성'이 24.5%로 가장 높고, '전공을 위한 기초'가 23.7%, '가치관의 확립'이 16.7%, '지도자적 인격도야'가 15.2%, '올바른 역사·세계관의 확립과 국민의식 고취'가 12.1%, '객관·논리적 사고 능력의 함양'이 5.1%, '전통문화의 이해'가 1.2%, '올바른 교육관의 배양'이 1.6%를 차지하고 있어 교양교육의 개념적 多意性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12]

위에서 보인 敎養敎育의 目標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교양교육에 대한 개념적 혼란과 아울러 교양교육을 '인격의 완성'으로 보고 있는 대학과 '전공교육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보고 있는 대학이 거의 비슷한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대학들이 自由 敎養人의 양성과 전문적 직업인의 양성, 혹은 "고전적 대학과 대중적 대학의 상충되는 두 이념의 불안한 혼합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의 기대의 측면에서, 그리고 실질적인 대학 운영의 측면에서 보면 한국의 대학은 대중적 전문직업 교육기관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교수나 학생을 포함하는 대부분 대학인들의 머리 속에는 고전적 엘리뜨 교육기관으로서의 대학교육 이념이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는"[13]데서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다.

그러면서도 실제 대학에서 개설하고 있는 교양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양, 즉 '인간다운 전인적 존재로의 지향'이나 '인간의 마음을 조화롭게 발달시켜 경험적 세계와 상징적 세계 모두를 폭 넓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도울 수 있는 교과과정이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즉 전국 대학에서 敎養課程에 배당하고 있는 평균 학점수는 45.6학점으로 총 졸업학점의 3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법령에 의한 필수과목과 각급 학교의 특성에 따라 교과과정상 필수로 지정하고 있는 과목, 학문의 기초개념과 탐구방법에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과목과 專攻科目을 이수하는 데 필요로 하는 도구과목에 배정하고 있다. 학점수만을 가지고 생각한다면 결코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할 수만은 없다. 졸업에 필요한 140학점의 근 3분의 1이 교양과정에 배당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학점에 배정되어 있는 교양과정의 교과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만족스럽지 못

11) 曺武男, "大學 敎養敎育의 改編 方向", 「大學敎育」, 제10호, 韓國大學敎育協議會, 1984, p. 81.
12) 朴鍾哲, 「1984年度 大學 敎養·國民倫理評價報告書」, 韓國大敎育協議會, 1984, pp. 14-19 참조.
13) 金麗蔣, "哲學과 敎養敎育", 「大學敎育」, 제 2 호, 韓國大學敎育協議會, 1983, p. 19.

한 상황이라는 사실을 곧바로 느끼게 된다. 그것은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교양과정의 구성이 법령에 의한 필수과목인 교련, 국민윤리, 국사, 체육에 평균 13.9학점을 배당하고 있으며, 각급 학교의 특성에 따라 교과과정상 필수로 지정하고 있는 과목에 평균 17.2학점을 배당하되 그 교과목들은 주로 학문연구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도구과목이나 어학과목 그리고 그 대학의 建學理念과 밀접하게 연관된 교과목들—특히 종교와 관련된 강좌—을 필수로 지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대부분이 專攻을 이수할 수 있는 기초적인 전공실력의 함양과 자기 전공 이외의 他學問의 基礎를 이해하도록 하여 학문의 연계성을 이룩할 수 있도록 하는 문학개론, 철학개론, 언어학개론, 문화사, 경제학개론, 법학개론, 수학, 과학, 물리, 생물 등의 교과목에 배당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교과과정에서 반성되어야 할 것은 '인격의 완성'이나 '진·선·미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교양교육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양에 적합한 교과목의 개설에 지나치게 인색하다는 점이다. '인격의 완성'이나 '진·선·미의 균형적 발전'이란 인간의 內的인 人間性 形成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內的인 人間性의 完成은 음악·미술·문학 등의 예술을 통해 심미안을 키우고, 전통적인 우리의 文化를 올바르게 섭취함으로써 삶의 質을 높이고, 心性의 계발을 통해서만 성취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교과목들은 겨의 찾아볼 수 없겠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나라 대학에서의 교양교육의 목표가 이중적인 것이어서 전문적 학문연구를 위한 기초과정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해도 인간의 내적 완성을 위한 일반적이며 통합된 안목과 견식과 품성을 계발해 줄 수 있는 교과목들을 개발하고 다양하게 제공해 줄 수 있어야 진정한 교양교육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교양교과목은 이제까지의 교과목처럼 학문의 기초영역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주제나 문제 중심의 포괄적인 교과목을 개발하여 인접 학문분야와의 관련을 유지하면서 종합·통합된 내용을 제공"[14]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인간의 내적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 것이다.

專攻科目을 이수하는 데 필요로 하는 교과목들도 지나치게 基礎專攻의 성격만을 띠고 있다는 점 또한 반성되어야 할 것이다. 전공과목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교과목들이라면 무엇보다도 먼저 그 전공을 이수할 학생들로 하여금 그 학문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 전공이 속해 있는 系列의 학문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대학에서 실제로 개설하고 있는 이러한 성격의 교과목들은 어떤 특정 전공과 밀착되어 있는 것이어서 학문간의 통합적이며 종합적인 연계성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전공학문의 하위에 속하는 종속적이거나 초보적 단계를 암시하는 교과목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비록 專攻을 이수하는 데 필요로 하는 敎科目들이라 해도 그것은 적어도 어느 한 特定 學問分野의 기초과정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全學生 아니면 系列을 같이하는 학생들에게 "共通的인 敎育課程을 中心으로 人間과 環境의 性格에 대한 充分한 洞察力을 길러 統合된 經驗과 成熟한 人格發展을 위한 넓은 機會를 주며, 個人의 知性과 判斷力과 價値選擇의 힘을 키워 주는 自由市民으로서의 갖추어야 할 基本的인 敎育"[15]과 專攻敎育을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의 함양을 위해서 계열별 학문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學問의 橫的 連繫(cross disciplinary)와 학문 또는 지식의 상호간의 內的 統合(interdisciplinary)'을 꾀할 수 있는 敎科課程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Ⅳ. 結 語

이제까지 敎養敎育에 대한 정의와 그 정의를 바탕으로 현행 각 대학의 교양교육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검토해 보았다. 그리고

14) 金鎭萬, "敎養敎育課程에 대한 所見", 「大學敎育」, 제 2 호, 韓國大學敎育協議會, 1983, p. 25.
15) 朴奉穆, 「敎育理論과 實踐原理」, 學文社, 1982, p. 191.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敎養敎育'에 적합한 교과목들이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과, 전공을 이수하기 위한 준비과목들도 지나치게 특정 학문분야의 기초과목으로만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선 人間性의 調和로운 발달을 유인할 수 있는 새로운 교과목들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폭 넓게 개설되어야 할 것이며, 전공을 위한 기초과목이라고 해도 그 학문영역을 포괄하는 '학문의 횡적 연계와 학문 또는 지식 상호간의 내적 통합'을 꾀할 수 있는 교과과정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합리적인 교양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먼저 개선하여야 할 점은 거의 모든 대학에서 敎養科目들을 필수과목으로 묶어 놓아 학생들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고 있다는 점과, 교육환경의 부실 및 교수방법의 단순성이다. 이미 고등학교에서 배웠던 단조로운 강의내용을 반복하기보다는 보다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강좌를 다양하게 개설함으로써 학생들의 흥미와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켜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한 강의실에 1~2백명, 심지어는 3~4백명의 학생들을 몰아 넣고 교수는 일방적인 권위에만 의지하여 단편적인 지식을 주입식으로 교수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학의 현실은 敎育 그 자체를 非敎育的 狀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며, 이러한 현상은 大學人 모두가 敎養敎育을 기피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학교시설이나 敎授, 助敎 등 교육환경이란 학교의 재정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이어서 일시에 개선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라고 해도 재정문제만 들먹이며 교육 현장의 문제점들을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이 땅의 大學敎育은 소생하기 힘든 상황으로 빠져들 것이다. *